URINET

등록번호 : 경기파00107 등록일 : 2006년 8월 7일
발 행 일 : 2012. 4. 1 간별 : 격월간 발행인 : 박공영
편 집 인 : 박공영 발행처 : 우리꽃
발 행 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본사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중부영업소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
TEL 031)712-7001,7119 FAX 031)712-7991

우리네

3/4

www.uriseed.com

정기간행물 등록 32호 Vol.54 | 우리꽃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이 내용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야생화

이제, 제 이름을 찾아주어야 할 때

다양성과 기능성,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언!

많은 조경용 식물소재 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작목을 전환하여 소위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관목이나 초화류(주로 야생화로 표현)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들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더 불투명한 앞날이 예고되고 있어 진퇴양난이다. 특히 올해는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이 있어 대형 국책사업의 진행 및 새로운 발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화 생산농가는 지속적이고 폭발적으로 성장, 증가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야생화의 조경적 도입이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경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 왔다.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은 다양성 요구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다양하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젊은 귀농인들(사실,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농업대를 졸업한 젊은 전문 농업인)과의 대화에서 야생화재배의 미래 시장성에 대한 질문과 작목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접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많은 품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화가 아니다. 대부분은 조경용으로 검증이 된 재배종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야생종을 wildflower라 하여 조경용, 혹은 재배종과 구분한다. 조경용은 정원식물(Garden plant)이라 하여 야생종과 구분하고 1년생(annual plant), 2년생(biennial plant), 다년생(perennial plant)으로 구분하고 이용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가 가져다주는 제한이 그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야생화"라는 단어에는 야생에서 자라는, 혹은 우리의 자연에서 자라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생식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조경용이라는 용도로 본다면 순수 야생종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생리, 생태적으로 발생되는 생육의 문제이다. 그리고 오히려 자생지를 파괴하기도 한다. 또, 들이나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재배 가능해 생산자인 농민이 그 일차적 피해를 보고 가장 큰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성이나, 정원의 요구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설계자의 의도 혹은 객관적 공공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렵고 경관의 연출에 한계를 가지다 주기 때문이다.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무엇보다 많은 이용자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야생화는 벌개미취, 억새, 구절초, 산국, 꽃창포, 붓꽃, 비비추, 맥문동, 섬백리향, 기린초, 큰꿩의비름 등 매우 많은 종류가 선택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조경용으로 분류되어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식물들이다. 그럼 수호초, 후ястуз, 아스틸베(노루오줌), 클레마티스(큰꽃으아리류), 독일붓꽃, 사사, 옥잠(호스타), 에키네시아, 가우라, 금계국, 아주가, 아스타, 꽃잔디, 상록패랭이, 아이리스(꽃창포류), 꽃나리, 꽃양귀비 등 오히려 우리의 순수 자생종보다 더 많은 해외 도입 조경용식물이 "야생화"라는 이름으로 거래되고 이용되고 있다.

△우리꽃이 개발한 상록잔디패랭이

이제 우리나라도 조경용 수근식물이 중요한 산업적 요소로 정착되었고 많은 농민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는 적당한 조경용 식물이름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순수 야생화의 특별함도 살리고 경관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순수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야생화(?)가 해외에 수출되어 로열티를 받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로열티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코레옵시스 '우리드림시리즈'가 그러하고 패랭이 '상록잔디패랭이'가 그러하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발달된 언어를 이용하여 "야생화"란 좁고 왜곡된 명칭을 버리고 다양성과 기능성에 알맞은 이름으로 통일명칭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정원식물" 혹은 "조경식물"등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기존에 실렸던 '현장리포트' 코너를 좀 더 강화하여 실제 현장 조경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다양한 조경기법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했다.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누구나 쉽게 조성할 수 있는 옥상정원

▶ 초박형 · 비관리형 식생유니트

개념도

옥상녹화라 하면 인공적인 구조물에 인위적으로 토양층 등의 식생기반을 형성하고 식물을 주로 이용한 식재를 하거나 생물서식 공간으로서의 수공간 등을 만들어서 조경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에는 옥상정원, 하늘정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대도시의 경우, 도시내 생활권 공원면적(인구1인당) 1㎡를 늘리기 위해서는 약 10㎢의 녹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당 지가를 최소 100만원으로 산정해도 약 10조원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에 녹지면적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과 옥상녹화의 순기능(건물가치의 상승,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경관 향상, 휴식공간 제공, 소음경감, 대기환경 개선 등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이 더해져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올해 공공건물의 약 20여개소에 옥상녹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간건물 부분에서도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대상지로 약 50여개소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관공서, 건물주, 일반시민 등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이제는 옥상녹화가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옥상녹화사업은 건물주나 이용객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되기는 하나 현재, 사전계획에서 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거의 대부분이 관 주도로 이루지고 있다. 우선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옥상녹화유형(경량형, 혼합형, 중량형 등)을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용역회사의 설계작업 및 심의가 이루어지며 설계서를 바탕으로 현장작업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건물주나 건축물관리자에게 유지관리지침서가 인계된다. 조금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옥상정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결정단계까지의 복잡성, 고비용, 전문 시공인력 필요, 유지관리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건물주가 스스로 옥상녹화를 계획하고 실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장점

그렇다면 좀더 쉽고 빠르게, 저비용으로 누구나가 설치가능한 옥상녹화 시스템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당사의 〈초박형 · 비관리형 식생유니트(특허등록번호 20-0455094)〉 제품이다. 유니트형태의 옥상녹화 제품은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제품에 따라서는 전문시공팀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설치도

당사의 〈초박형 · 비관리형 식생유니트〉는 배수판, 저수판, 식생기반체, 식물들이 하나로 일체화되어 현장에서 식생유니트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옥상녹화가 완료되며 포트묘를 식재하여 완성하는 기존 공법과는 달리 사전재배되어 70%이상의 피복율을 갖는 식생기반체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완료와 동시에 옥상정원이 완성되어 경관적 효과가 발휘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가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다.

유지관리 No! 하중걱정 Zero!

▲저수판의 수분저장 효과 탁월 ▲유니트 교체가 자유로움 (45도 합체) ▲장당 최대하중 11kg 60kg/㎡당

간단설치! 빠른효과!

▲간편설치 원터치 연결구 ▲타사 제품 ▲우리꽃 제품(옥상녹화)

▲바탕면정리 및 청소(시공전) ▲인접마감부위 절단 마감(시공) ▲시공완료 ▲시공완료 ▲시공완료

적용식물

본 식생유니트에 적용이 가능한 식물로는 건조에 강한 세덤류를 기본으로 그라스류 및 초화류 등이 있으며 각각의 생육특성 및 화기, 화색 등을 고려하여 혼합배치함으로써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추, 배추 등의 엽채류 및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여러가지 쓰임새가 많은 제품이다.

▲세덤 ▲마란알핑의비름 ▲큰핑의비름 만추 ▲애기세덤 ▲아이스댄스

▲상록잔디패랭이 ▲상록애기기린초 ▲블루애기세덤 ▲블루솔세덤 ▲붉은애기핑의비름

▲무늬돌나물 ▲단풍세덤 ▲노란줄무늬핑의비름 ▲금강애기기린초 ▲백두산애기기린초

우리꽃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설육묘장 지열난방 가동

시설 현대화와 고급 품종육묘와 생산의 기치 아래 1단계로 작년초 지금의 신설육묘장(가칭)이 만들어졌고 2단계로 작년 하반기부터 지열난방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완공되어 가동단계에 들어갔다. 지열난방의 장점으로는 첫째, 친환경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적다. 둘째, 편리성으로 냉방, 난방, 급탕이 가능하고 원터치 운전이 가능하다. 셋째, 안전효율성으로 반영구적 수명을 가지고 있고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다. 넷째, 경제성으로 에너지비용이 절감되어 냉방시 에어컨대비 40%이상 절감이 되고 난방시 보일러대비 60%이상 절감효과가 있다. 앞으로 3단계로 관수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설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설육묘장을 통해서 고급종 육묘와 양질의 회분재배를 통해서 제품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공영 대표 박사학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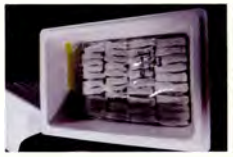
당사 박공영 대표가 2007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올해 2월 15일 경희대학교 대학원 생태시스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수직정원 조성에 따른 식물 생육특성 및 환경적 효과(The Impact of Vertical Garden Formation on Plant Growh and Environment)이다. 이 논문은 앞으로 수직정원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높이 평가될 수 있고 심각한 열에너지 소비에 대한 효과적인 절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새로운 녹색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사회경제적 효과 증대 또한 크게 기대되는 연구결과로 판단된다.

우리꽃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열립니다.

우리꽃 통합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어 열립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주요 품목에 대한 검색기능이 있어 고객분들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로 알맞은 품목을 검색할 수 있으며, 로그인한 회원분들은 전화문의로 오래 기다리실 필요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견적서를 프린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화수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담아내고 벽화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코레옵시스 우리드림 일본수출

올해로 3년째 코레옵시스 우리드림을 일본 히쿠산사에 수출하였다. 올해는 총 3번의 수출이 계획되었고 4월 두번째 수출 물량이 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우리드림 '썬셋', '핑크리본' 이외에 '틴티드레드' 제품이 추가되었고, 내년에는 총 6개 품종을 확대 수출할 예정이다.



도시원예전문 쇼핑몰 가든조아 오픈 www.gardenjoa.com

우리꽃이 야심차게 준비한 도시원예전문 쇼핑몰 가든조아(www.gardenjoa.com)가 2012년 4월 오픈합니다. 쇼핑몰은 도시소비자가 옥상, 베란다, 화분, 노지 등에 조성하는 텃밭과 정원에 필요한 다양한 식물과 자재 그리고 문화정보를 담아낼 것이며, 가든조아 안에서 도시소비자의 건강한 문화와 소통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이천그린아카데미 개최

2011년도 제1기 아카데미가 뜨거운 호응 속에서 끝마친 이후,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2012년 제2기 아카데미를 또다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농업인재개발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일정** : 2012년 4월 11일~ 8월 1일 / 주 1회(매주 수요일) 10:00~12:00 이론교육 / 13:00~16:00 텃밭 및 실습교육
- **교육비** : 12만원(재료비 별도)
- **지원사항** : 중식제공, 텃밭제공
- **신청접수** : 정원 30명 선착순 마감시까지
- **교육문의** : 031-634-7990

새롭게 선보이는 도입품종 또는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소개함으로 현장에서 조경용 소재로 수근제피식물을 선택하는데 있어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키가 큰 직선형의 보라색 물결

버베나

▶대군락 식재, 라인식재, 포인트 식재 어디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버베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있다. 일반적으로 버베나를 말할 때 일년생 초화류 중 보라, 분홍색을 가진 키 작은 품종을 연상하게 된다. 이번에 소개하는 버베나 품종은 키가 크고 직선형의 보라색 꽃을 피우는 품종이다.

이 품종 또한 일년생으로 유럽 등지에서도 화단을 조성하거나 디스플레이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년생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키는 약 70~100cm 정도 직선형으로 자라고 웬만해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대가 튼튼하다. 꽃이 다화성이고 장기개화되는 특성이 있어 여름 이후에 축제 또는 행사를 위한 1회성의 대면적 조성용으로 이용하면 매우 유리하다. 군식되어 보라색 꽃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은 장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쉽게 접해보지 못한 경관을 선사해 줄 수 있다. 또한 꽃 색상이 다양하고 장기개화하는 풍접초, 가우라 등과 번갈아 라인식재하는 것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숙근초 또는 일년생을 가지고 화단을 조성할 때에도 포인트 식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숙근초와 혼성식재하면 효과적인 화단조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화분에 디스플레이용으로 중앙에 배치하여 포인트식물로 활용하면 좋다.

종자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꽃'에서는 선주문을 받아 트레이묘로 재배하여 납품하거나 현장에 식재하는데 식재 후 약 45일 후면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볼 수 있다.

꽃이 크고 키가 작은 데이지

데이지 실버문

▶혼합식재시 최적의 봄꽃 소재입니다.

데이지는 국화과 크리산세멈속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봄에 볼 수 있는 일년초 도로화단에서 키 작은 하얀색 국화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년생 데이지 품종이다. 그리고 조경용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샤스타데이지이다. 숙근초로 5~6월경 일찍 꽃을 피우고 생육이 강건하여 도로변 등에 군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발아가 잘 되고 생육이 강건하여 씨딩용으로 바로 종자를 파종하여 이용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샤스타데이지는 정원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키가 크고 너무 생육이 왕성하여 맞지 않는다.

이번에 소개하는 데이지 '실버문'은 데이지품종 중 정원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키가 약 30~40cm정도 밖에 자라지 않으며 5월 중순경 꽃을 피운다. 꽃은 달링이처럼 일반 샤스타데이지에 비하여 크고 하얀색 꽃은 매우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잎의 모양은 결각이 거칠고 길쭉한 형태로 늦여름에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우기 전까지 관상가치가 있다. 샤스타데이지는 줄기가 가늘고 키가 큰 반면에 이 품종은 줄기가 굵고 튼튼하며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조경에의 적용은 단독으로 군식하는 것보다는 혼합식재시 봄꽃용으로 앞쪽라인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꽃이 많이 있지 않은 시기에 순백의 아름다운 꽃으로 정원을 수놓는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난 후 꽃대를 잘라주면 종고한 자리에서 연속해서 꽃을 볼 수 있도록 그 사이에 꽃백합을 혼성식재 해주는 것이 좋다. 데이지가 지고 나면 곧이어 형형색색의 꽃백합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다.

식재시 주의할 점은 습에 약하므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꽃의 대표적인 로얄티 신품종 소개

우리꽃의 최신 신품종을 소개하고, 이러한 신품종들이 우리꽃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농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보았다. – 편집자주 –

우리꽃이 현재까지 선보였던 신품종들은 해외도입 품종과 자체개발 품종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선보였던 숙근코스모스, 가우라 등 신품종들은 해외에서 용도와 경관성을 인정받은 품종들을 우리나라 종부, 남부 지방에서 시험재배를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판매를 하였다. 꽃양귀비 품목이나 가우라의 경우처럼, 우리꽃을 통해 국내에 첫선을 보인 많은 도입품목들이 현재 많은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고, 이런 경로로 국내에 많이 보급되었다. 상록잔디패랭이, 눈붉은찔레 등의 신품종들은 우리꽃에서 직접 개발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한 품종이다. 그 용도와 특성이 우리나라 조경경관에 맞도록 개발되었으며, 우리꽃 이외의 회사가 우리꽃의 승인없이 생산할 수 없는 품목들이다.

▲상록잔디패랭이

▲부처꽃탑

▲금강애기기린초

▲가우라베이비

우리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내외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수집 연구하여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의 대표종으로는 우리드림이 있다.

코레옵시스 속의 새로운 조경식물인 우리드림이 개발되고 품종보호출원을 한 지 만 3년이 지났다. 우리드림시리즈의 7개 품종은 현재 품종보호등록이 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일본에도 3년째 수출을 하고 있다. 우리드림 이외에 코레옵시스 속의 신품종을 화형과 화색, 초형별로 30가지 이상 품종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해외에 적극 소개가 되어 해외의 여러 회사들이 러브콜을 보내 오고 있으며, 오히려 수출 회사 선정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정작 개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판매하지 않았다. 왜일까?

현재까지 로얄티에 대한 국내의 일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인식이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출해야 하고 농가소득에 부정적 요인이라 여겨 해외에서는 당연한 로얄티책정을 과감하게 생략한 채 자체 개발 품종을 판매 해왔으며, 경기도 인근에서 무단으로 증식되어 유사한 이름 또는 같은 이름으로 다른 판매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인해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개발한 신품종들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왔던 품종개발연구와 신품종보급사업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 판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드림은 수출용 품목으로만 남아있어야 할 것인가?

다국적 종자 개발 회사에 의한 종자시장 점령은 토종유전자의 유출과 함께 그 부가가치까지 넘어갔으며, 이미 주요 원예작물의 로얄티 지급액이 연간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화훼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고 알려져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민간기업들은 왜 순수 국내 화훼 품종개발을 외면하는 것일까?

▲우리드림 수출용 삽수 커팅 모습

▲유럽 아르마다 패랭이 시험재배 모습

▲일본 하쿠산 우리드림 시험재배모습

▲우수선발개체 특성조사 모습

현재 화훼재배농가들이 소비는 둔화되고, 기존 작목의 가격은 계속 하락세인데다가 새로운 작목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외국의 신품종을 재배하려고 하면 높은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고, 분화생산에 대한 여러 조건을 힘들게 규명하여 생산이 안정될 즈음에는 많은 농가들이 같은 작목에 뛰어들어 다시 작목의 가격은 하락되고, 로얄티는 계속 지불하게 되어 경영비는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신품종을 개발하는 국내 회사의 입장에서는 로얄티가 국내 농가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어 있는데다가 화훼의 경우, 유행성이 강해 품목별로 유행속도가 짧은 주기로 변화하는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반면에, 개발기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힘들게 품종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해외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지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보자. 국내 개발 회사가 개발한 신품종을 국내 농가에 로얄티를 받고 보급을 하게 되면, 개발 회사는 로얄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게 될 것이다.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로얄티를 유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품종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같은 작목에 뛰어들지 않도록 공급을 조절하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분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했던 투자비와 매년 동일하게 지급하는 로얄티를 장기간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회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은 자신의 농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찾게 될 것이고, 로얄티의 가치만큼 생산하는 품목의 가격 또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길 것이다.

우리 농가들은 고소득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화훼 소비는 촉진될 것이다. 또한, 외국산 품종을 높은 가격에 수입하여 재배하기 보다는 국내화훼품종들이 브랜드화되어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해외를 공략할 수 있는 국내 품종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다.

로얄티는 농가들에게 쓸데없이 경영비를 올리는 나쁜 요인이 아니라, 시장성을 보장받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또한, 민간기업에게는 국내시장을 넘어서 '종자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주는 당근이 될 것이다.

우리꽃의 신품종들과 우리꽃의 로얄티가 감히 우리 농가의 미래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2012년 신품종 시리즈

▲우리드림 레드 출원번호 102012000287

▲우리드림 핑크 출원번호 102012000298

▲우리드림 옐로우 출원번호 102012000044

▲우리드림 화이트 출원번호 102012000047

▲우리드림 쎈셋 출원번호 102009000287

▲우리드림 틴티드레드 출원번호 102011000038

2012년 출시

우리꽃의 신품종들은 품종보호받고 있으며, 로얄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레옵시스 시리즈

튜브타입의 독특한 화형을 가진 리본시리즈

▲레드리본 / 출원번호102012000297

▲오렌지리본 / 출원번호102011000039

▲레몬리본 / 출원번호102011000043

▲핑크리본 / 출원번호102009000293

완벽한 마운딩 폼을 가진 왜성 미니볼시리즈

▲레드미니 / 출원번호102012000293

▲라운드미니 / 출원번호102012000294

▲화이트미니 / 출원번호102012000285

▲레드선 / 출원번호102012000286

맑게 빛나는 그린색 수술로 독특한 오드아이 그린스마일 시리즈

▲그린레드 / 출원번호102012000284

▲그린에프리킷 / 출원번호102011000041

▲그린핑크 / 출원번호102012000268

달마시안/팅커벨/썬샤인 코레옵시스 스페셜리티

▲달마시안 / 출원번호2012000308

▲팅커벨 / 출원번호102012000283

▲썬샤인 / 출원번호102009000291

패랭이

2010년 네덜란드 아르마다사와 시험재배 계약체결,
2011년 미국 퍼시픽사와 시험재배 계약체결

▲러빙핑크 / 출원번호102011000089

▲파핑핑크 / 출원번호102011000087

가우라

▲그린스마일 / 출원번호102012000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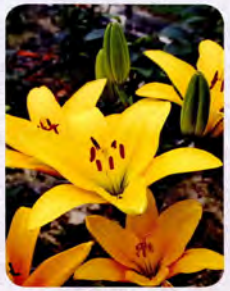
▲핑크스마일 / 출원번호102012000272

우리꽃은 창사 이래 조경용 묘종 및 종자 시장에 많은 신제품을 선보여 왔다.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잔디패랭이, 우리법면혼합종, 눈붉은찔레 등등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 속에 현장에 적용되어졌고 지금도 꾸준히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며 지금까지도 조경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우리꽃 명품'들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혼성식재를 위한 최고의 품종 꽃백합

흔히 꽃나리라고도 불리는 꽃백합은 구근식물로 주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서 자생하며 수많은 교배종이 있고 대략 100여종이 있는 대형속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절화용으로 재배되어 사용되어져 왔으며 조경용으로는 가정의 소화단에 일부 심겨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꽃은 화려하지만 화기가 짧아 조경용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실제로 그 활용이 절화용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꽃'에서는 꽃백합이 매우 화려하고 구근으로 다른 식물과 혼성식재가 가능한 점에 착안, 적극적으로 조경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혼성식재시 주식물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꽃백합은 6~7월에 개화하기 때문에 봄 또는 가을에 개화하는 초종과 혼성식재하면 봄꽃이 꽃이 지고 난 후 또는 아직 꽃이 피기 전인 가을꽃 사이에서 여름의 공백기를 충분히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꽃'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각 현장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는 철쭉사이의 꽃백합식재도 이런한 점에 착안하여 적용된 것이다.



종이 다양해 화색과 초장에 따라서 여러 품종이 존재한다. 키가 작은 품종은 분화용 또는 혼합식재시 앞쪽 키 작은 식물과 혼성식재하면 좋다. 키가 큰 품종은 단일 대군락 식물들과의 혼성식재가 매우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철쭉 군락사이에 식재하든가 또는 그라스 중 억새류는 순이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억새류 군락지에 혼성식재하면 여름에는 꽃백합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이후 아름다운 억새류를 감상할 수 있다.

재배는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가 좋으며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한다. 대부분 약산성에서 중성토양을 좋아한다. 성장이 활발할 때 물을 충분히 주고 겨울에도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은 양지를 선호하지만 수림의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그렇기에 나무 그늘 아래 반음지 식물 사이에 혼성식재해도 무난하다.

'우리꽃'에서는 그동안 새로운 품종 개발 뿐 만 아니라 기존의 품종군들을 조경용으로 새롭게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꽃백합 또한 '우리꽃'에서 적극적으로 조경에 적용함으로써 이제는 혼성식재를 위한 조경의 주요 소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그 활용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우리꽃 • 벽화수(주) 홈페이지 새단장!

4월 23일 OPEN

우리꽃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열립니다.

조경용 식물 700여종 소개!

다년생, 이년생, 일년생 등 다양한 조경용 식물 700여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1가지 검색키로 분류되어 있어 쉽고 편하게 원하는 식물과 품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조경회사, 설계회사, 관공서, 개인 등 조경용 식물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실었으며, 고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을 사무실의 전화나 팩스로 의뢰하고 응대 받고 또 견적서를 다시 받는 데까지의 시간을 줄이고자 온라인 견적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단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입 시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삼자단가와 설계단가 또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넷을 전자신문으로 보실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고객 여러분과 빠르고 친절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검색방법

검색키
과명 화색 개화기 키 빛 물 성록성
내한성 이용성 판매방식 분류

1. 이름을 직접 기입해서 검색 이름검색(이름검색1→이름검색2)

2. 검색키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종들을 선별해서 검색(검색예시1→검색예시2)

벽화수

혼합식재, 아리가든, 벽화수 등 시공현장 및 주요특허공법 소개

혼합식재, 아리가든, 벽화수 등 대표적인 시공 공법은 물론, 매트리스개비온, 옥상녹화용 초박형·비관리형 식생유니트, 식생거적 등 최근 특허등록된 시공방식들을 포함한 벽화수만의 특허 조경시공 방식들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시스템의 특성은 물론 적용 가능한 초종과 실제 시공 사례들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담당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시방서, 일위대가, 표준도면 등을 바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꽃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견적 기능이 있어 간단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견적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벽화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여러분들을 위한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 전문가그룹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도시농업팀에서 알려주는 도시농업 제대로 하는 법을 연재로 싣는다. – 편집자주 –

도시농업제대로하기 2

봄철에 손쉽게 기를 수 있는 텃밭 채소

요즈음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텃밭 재배에 대한 책자들을 통해 많은 작물이 소개되고 있지만, 초보자들은 어떤 작물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재배하기가 쉬워 초보자들이 쉽게 재미를 붙일 수 있고, 건강에 좋은 봄 채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과채류로는 풋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근채류로는 감자, 고구마, 엽채류로는 상추류, 청경채, 적겨자채, 경수채, 비타민다채, 잎들깨, 근대, 아욱, 시금치, 쑥갓을 추천코자 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농학박사 이재욱

1. 감자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칼륨과 인산이 풍부하며,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작물이다.
봄이 와서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감자이다.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감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집에서 먹다 남은 감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바이러스 등 각종 병해에 걸리지 않은 건전한 씨감자를 사용해야 작물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 수량도 많아진다. 감자는 파종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중부 지방(수원)을 기준으로 하면, 3월 20일경부터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파종하는 것이 좋다.

감자는 파종 후 90~100일이 되어야 수확할 수 있는데, 파종기가 늦어지면 덩이줄기의 성숙기가 25℃ 이상의 고온에 처하게 되므로 전분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맛이 떨어지며, 또 수확기가 장마기와 겹치기 때문에 부패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생육 초기부터 꽃이 피는 덩이줄기의 비대기까지는 충분히 관수하여 생육을 촉진시켜야 하며, 덩이줄기의 비대가 완료되는 시기에는 물을 많이 주면 부패가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확은 되도록 장마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2. 고구마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혈압 강하와 혈관 개선에 도움이 되며,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작물이다.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고구마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의 3종류가 있는데, 자색고구마는 때깔은 좋으나 맛은 별로 없으므로,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를 권유하고 싶다. 고구마는 5월 15일경에 꺾꽂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대체로 하루 늦게 꺾꽂이하는데 1% 정도 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이후에 꺾꽂이할 경우에는 전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늦어도 5월 중에는 꺾꽂이하는 편이 좋다.

고구마는 꺾꽂이 후 110~130일이면 수확할 수 있으므로 5월 중순에 꺾꽂이할 경우 9월 중하순이면 수확할 수 있다. 때깔 좋고 먹음직스런 고구마를 수확하더라도 바로 쪄 먹으면 맛이 없다. 왜냐하면, 수확 직후에는 전분의 함량은 높으나 후숙 과정을 거쳐 전분이 당으로 변환하여 당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마는 수확 10~15일 후에 먹는 것이 좋다.

3. 풋고추

고추는 풋고추 전용 품종을 권하고 싶다. 풋고추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개화 후 10-12일이면 수확할 수 있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과채류이다. 고추뿐만 아니라 가지와 토마토는 정식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들 과채류는 열대지방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저온이나 서리에 대단히 약하기 때문이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늦서리의 위험이 없고, 야간의 최저기온이 10℃ 이상 되는 5월 10일 이후에 심는 것이 안전하다.

고추는 정식 후 1개월 정도 자라면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1번 분지점(방아다리) 아래의 잎과 측지는 제거하여 통풍이 잘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추의 뿌리는 천근성인데, 침수에 약하여 장마철에는 역병에 걸릴 염려가 있으므로 이랑의 높이를 30cm 이상으로 높여서 배수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추를 오랫동안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료 성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식 30일 후부터 20일 간격으로 웃거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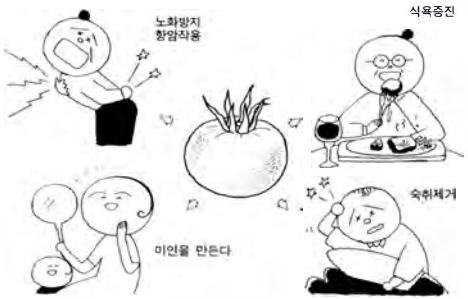
가지는 과채류 중 영양가는 낮은 편에 속하나, 각종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흡수하고, 혈관 안의 노폐물을 잘 용해하여 피를 맑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어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지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작물이나, 잎 관리를 잘하면 좋은 품질의 과실을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다. 무성한 잎을 그대로 버려두면 아래 잎에 햇빛이 잘 들지 않을 뿐 아니라, 통풍이 잘되지 않아 병 발생의 염려가 있으며,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호흡으로 소모되어 과실의 발육에 지장을 받는다.

가지는 과실 1개를 생산하는데 잎 3장만 있으면 충분하다. 주지에 착과된 과실은 상위엽 1엽과 하위엽 2엽으로 발육하는데, 과실을 수확할 때에는 과실과 함께 하위엽 1엽을 같이 제거하는 것이 좋다. 1차 측지에 발생한 2차 결가지는 착과 과실 바로 아래 곁가지를 제거하고, 과실 상위엽 1엽을 남기고 적심하며, 과실을 수확하면 수확 바로 아래 잎까지 잘라 주는 것이 좋다.

6. 방울토마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듯이, 토마토는 '타임즈' 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장수 식품으로, 비타민 C와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 항암 작용, 식욕 증진, 숙취 제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잘 자라고 병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쉬우며, 특히 열매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토마토는 화방마다 열매가 차례대로 달리는데, 상위 화방으로 갈수록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초보자는 좋은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가 어렵다. 전업농가에서는 7-8단까지 키우고 있으나, 초보자는 3단까지 키우는 적심 재배를 권유하고 싶다. 이것은 3단까지만 과실을 매달고, 주지를 잘라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과실의 성숙이 빨라지고 균일해지며, 품질 좋은 과실을 장마철 이전에 수확할 수 있다. 토마토는 자람에 따라 주지와 잎 사이에 결가지가 달리는데, 결가지는 조기에 제거해 주는 편이 좋다. 1화방 아래 착생한 잎은 1화방을 수확한 후에는 제거해 주어 통풍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화방의 꽃이 피면 윗부분에 있는 줄기는 잎 2-3장을 남기고 잘라 준다(적심). 토마토는 가물다가 갑자기 관수를 많이 하게 되면 열과가 많이 생기므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1주에 2회 간격으로 꾸준히 관수해 주는 것이 좋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 – 영국속담–

[식품으로서 토마토의 가치]

5. 상추류

상추는 대개 치마상추(청치마, 적치마)와 포기상추(적축면, 청축면) 위주로 재배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맛을 내고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품종이 많이 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메인(그린로메인, 적로메인)은 잎이 두툼하며, 즙이 많고, 단맛이 많이 나서 샐러드와 쌈으로 이용하기가 좋으며, 참나무 잎을 닮은 오크립 상추는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으로 샐러드 요리에 안성맞춤이다. 상추는 봄철에 재배하기가 가장 쉬운 채소인데,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모종을 구입해서 아주심기를 할 수도 있고, 씨앗을 직접 뿌려서 재배할 수도 있다. 정식한지 20일이면 수확할 수 있으며, 손바닥만한 크기가 되면 겉잎부터 한 장씩 따주는데, 이때 줄기의 아랫부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바짝 수확하는 것이 좋다.

상추는 지중해 지역이 원산이기 때문에 15-20℃의 다소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데, 적산온도가 대략 1,700℃ 이상이 되면 꽃눈이 분화되어 꽃대가 올라오게 된다(추대). 추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이 대부분 종자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므로 잎은 질겨지고, 쓴맛이 나는 등 품질이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꽃봉오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래 잎만 수확하고 뽑아버리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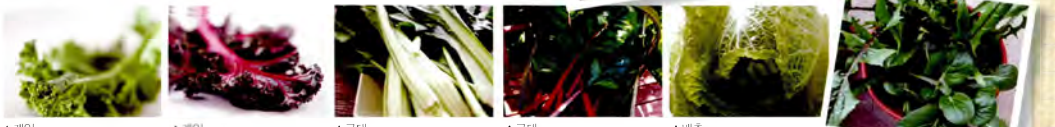
▲시저스레드

▲롤로 ▲오크립상추 ▲적축면 ▲청축면 ▲흑심치마 ▲결구상추

7. 엽경채류

상추 이외에도 쑥갓, 시금치, 열갈이배추, 열부, 아욱, 근대, 엔다이브 등의 엽경채류는, 5월 이후에 씨를 뿌리면 40일이면 수확할 수 있고, 온도가 높아지는 6월 이후에 파종하면 30일 만에 수확할 수 있는데, 여름에도 잘 자라며, 가을에는 서리가 오기 전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이들 채소는 성엽 채소로 뿐 아니라, 파종 후 15-20일경에 본엽이 3-4매, 초장이 10cm 정도 자랐을 때 어린잎 채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엽채류는 다소 배게 심어 웃자라더라도 식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며, 연한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배게 심는 것이 좋다. 어린잎 채소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할 때는 일반 종자보다는 가격이 싼 쌈채소용 종자를 구입하면 종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케일 ▲케일 ▲근대 ▲근대 ▲배추

우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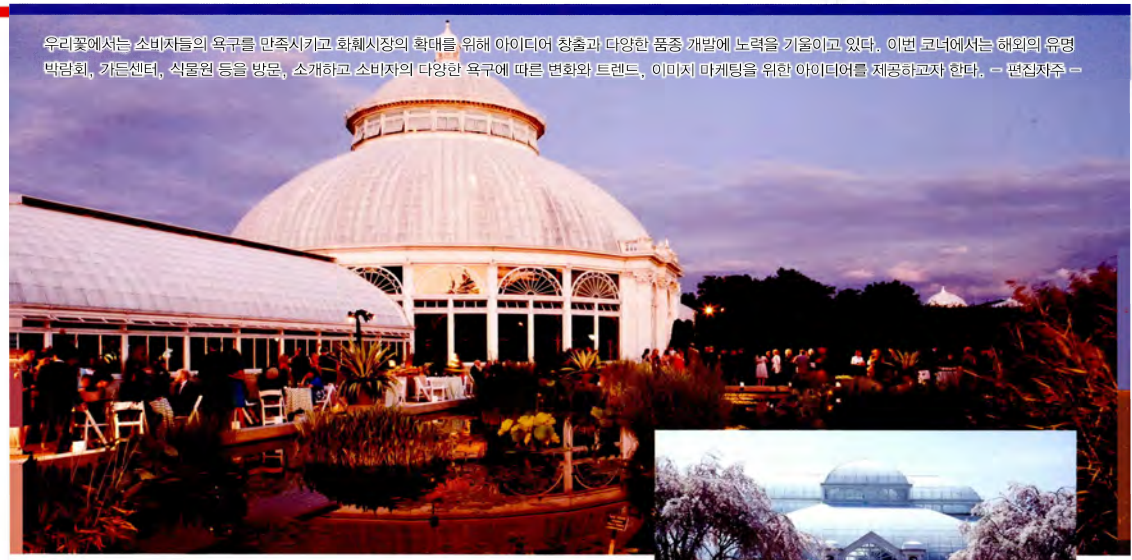
가든조아가 도시농업의 미래를 엽니다!

www.GardenJoa.com

우리꽃에서 한국의 도시농업 문화를 이끌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쇼핑몰 '가든조아'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가든조아'에서는 **옥상/베란다 정원, 텃밭재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을 취급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아름다운 문화로의 산책, 우리꽃이 함께 합니다.

www.gardenjoa.com
Tel: 031)712-7001,7119
Fax: 031)712-7991

우리꽃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화훼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람회, 가든센터, 식물원 등을 방문, 소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변화와 트렌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NY Botanical garden
뉴욕식물원

텃밭교육에 참여한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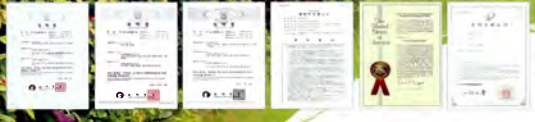
온실 안에서 이루어진 난 전시

뉴욕 식물원은 식물상과 식물에 관해 연구하는 미국의 우수한 연구소 중의 하나이다.

뉴욕 식물원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식물원이면서 교육시설, 과학연구단체,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뉴욕시 브롱스 공원에 있으며 면적이 101ha에 달한다. 전세계에서 자라고 있는 거의 모든 식물에 해당하는 약 1만 2000종이 있는데, 자연의 기복이 많은 지형을 이용하여 습성, 건성의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면적이 약 0.5ha인 온실에 1년 내내 전시된다. 온실 밖에도 암석 정원, 특산식물들만을 모아둔 정원, 침엽수류, 라일락류, 진달래류, 목련류 등을 각기 1가지씩만 모아둔 정원 등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탐험정원, 가족정원 본관에는 미국 식물학에 관한 책들을 모아둔 큰 도서관이 있으며 약 570만 점에 달하는 식물들의 표본들이 있는 표본실이 있다. 별관에는 식물생리 및 병리학의 연구실이 있어서 컬럼비아대학과 인접된 포덤대학이 제휴하여 학생 교육에도 임하고 있다. 교육용 프로그램은 전문가부터 일반인,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프로그램까지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1891년 컬럼비아대학교의 식물학교수였던 나타니엘 로드 브리턴이 이 식물원을 세웠으며 1900년에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브리턴이 식물원의 맨 처음 관리자로서 시작한 식물조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아마존 분지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여러 지역의 식물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조사한 바 있다. 1971년 뉴욕시 북부 더처스 군의 778ha를 구입하여 캐리 식물원을 만들었다. Enid A. Haupt온실은 1902년에 분을 연 온실로 미국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 시대 양식의 온실이다. 두 유형의 열대우림, 아프리카와 남미의 사막지대, 수생식물과 식충식물 전시관 등 11가지의 식물 서식지를 구현해 낸 A World of Plants라는 영구적인 전시, 즉 그 식물원 자체를 통해 지구의 아름답고 필수불가결한 식물 생태계를 보여주고자 하고있다.

계절마다 다양한 전시박람회를 개최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비수기라 할 수 있는 겨울철에도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뉴욕식물원을 찾는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할러데이 트레인쇼는 식물원 정원 내에 뉴욕시의 명소들을 설치, 작은 열차가 지나가도록 꾸며 놓은 볼거리다. 자유의 여신상과 옛 모습의 양키구장, 성 패트릭 성당, 뉴욕시의 다리와 터널 등 140개 랜드마크들이 자리해 있고, 0.5마일의 선로를 따라 기차가 건물들과 집, 명소들을 지나게 된다.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어린이들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을 연상시키는 사탕집을 만드는 일은 이 이 할러데이 트레인쇼를 관람하는 아이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이다.

식물원에 관람객의 발길이 가장 많아지는 매년 5월 말이면 1916년에 조성된 펠러 로즈가든엔 장미들이 서서히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다. 3000여개 이상의 장미가 자태를 뽐내는데, 가이드가 장미의 역사와 품종 등 정보를 제공하는 로즈가든 투어와 추첨을 통해 장미를 받아가는 장미 래플, 장미 기초 손질법, 콘서트와 와인을 즐기며 가든을 거닐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밖에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뉴욕식물원은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벽화수

국내특허에 이은 미국, 중국, 일본특허 획득!

국내 각 현장에서 보여준 "탁월한 효과", "검증된 소재"

이제는 벽면녹화를 뛰어넘은 아름다운 수직정원 조성은

'벽화수'가 최고입니다!

옹벽

▲중랑 SH아파트 옹벽

▲해남 공용주차장

▲남산1호터널

구조물

▲세종로 중앙분리대

▲부산 수영구 교각하부

▲부산 남구 방음벽

건물 외벽

▲이천도로공사 사옥

▲중랑나들이공원 사무소

▲강북재활용센타

벽화수(주) 상담문의 031)712-7001,7119 / Fax. 031)712-7991